

6월27일(월)/빌3:17~4:1

제목: 값싼 몸이 비싼 몸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자기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수치를 자랑으로 삼는 자, 세상 일에만 마음 쓰는 자, 최후에 멸망받을 자, 십자가와 원수 된 자라고 하였다(18~20절). 바울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시민임을 어디서나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20절). 그리고 교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였다. 그의 요지는 교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자라는 것이다(21절). 그러나 지금 현재 성도의 몸은 ‘낮은 몸’이다(21절). 낮은 몸은 인간의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값싼 육신을 가리킨다. 인간의 몸은 연약하고 무가치하다. 인간의 몸뚱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 고기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성도의 육신은 변하고 쇠하고 약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나의 멸할 천한 몸이 언젠가 비싼 몸, 영광의 몸이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로 살며 교회 밖에서도 성도로 살아야 할 자이다.

6월28일(화)/빌4:2~3

제목: 늘 싸우는 자? 늘 평화 하는 자?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평신도였지만 서로 분쟁하는 사람들이었다(2절). 이 두 이름은 여자 이름이다. 여자가 당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바울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언급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3절)라고만 쓰고 있다. 이 사람에게 복음 사역을 같이 도왔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것으로 봐서 유오디아와 순두게의 싸움을 해결하라고 바울이 특별히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3절).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는 글레멘드이다(3절). 바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사람에게 글레멘드를 도우라고 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즉, 빌립보 교회 안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부탁하였다(3절). 바울은 싸우고 있는 교회에 전능력을 동원해서 중재하고 있다.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에도 싸우는 여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평화를 만드는 자도 있었다. 우리들의 인생이 단 한 줄로 요약된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늘 싸우는 크리스찬으로일까? 늘 평화를 만드는 크리스찬으로일까?

6월29일(수)/빌4:4~7

제목: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는 됩니다.

바울은 분쟁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하라” (5절) 고 하였다. 이 말은 “너희들이 중도에서 화해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모든 세상이 알게하라”는 말이다. 여기서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전한다. 성도는 모든 사건을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6절).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과거에 지은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다. 미래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도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기억나는 사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먼 거리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주신다(7절). 기도하면 반드시 한 가지는 보장받는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자의 마음이 평화로워 지는 것이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기도자의 마음이 평화로워 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된다.

6월30일(목)/빌4:8~9

제목: 평강을 옆에 두는 방법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집중하며 살아야 할 목록을 열거했다(8절). 첫째는 참된 일이다. 참된 일이란 존경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크리스찬은 경박한 일에 투자하지 말고 존경할 만한 일에 종사해야 한다. 둘째는 경건한 일이다. 크리스찬은 향락적인 일보다 경건한 일을 가까이 해야 한다. 셋째는 옳은 일이다. 크리스찬은 거짓과 속임보다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야 한다. 넷째는 정결한 일이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천한 쾌락보다는 깨끗하고 맑은 일을 함으로 얻는 기쁨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는 사랑받을 만한 일이다. 크리스찬은 남에게 원한과 공포를 일으키는 일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사랑스러운 자’ 라는 평가를 받는 일에 열중해야 한다. 여섯째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크리스찬은 추한 말과 행동으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서는 안되고 항상 옳고 바른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일을 골라서 해야 한다. 일곱째는 덕이 있는 일이다. 크리스찬은 남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안되고 항상 유익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모든 목록들은 바울이 늘 모범을 보였던 행동들인데 이러한 일에 집중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을 늘 자기 옆에 두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9절).

7월1일(금)/빌4:10~20

제목: 주의 사람을 대접하면 복을 받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보여준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였다(10절). 바울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자족하는 사람이었다(11~12절).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던 초창기 시절과 또 테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원조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15~16절). 그들의 원조는 바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었다. 그들의 원조는 자신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되돌아갈 것이었다(17절). 그들의 원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18절). ‘향기로운 제물’은 구약 시대에 희생 제사의 냄새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향하신 것을 배경으로 하는 말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의 선물을 기뻐한 것은 자기도 물론 그것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에 결핍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했다(19절). 하나님이 준비해둔 복은 주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를 대접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것을 차단하는 것은 그들이 받을 복을 차단하는 것과 같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